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6. 7. 22.(수) 16:00

“한·독 재외동포 협력 첫걸음”...국제협력 방안 논의
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,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 면담을 통해 양국 재외동포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동포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)
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2일 재외동포청에서 펠릭스 요나단 글랭크(Felix Jonathan Glenk) 신임 한스자이델재단* 한국사무소장을 만나 한국과 독일 간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*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 '기독교사회당'의 정당 재단으로 '민주주의와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봉사'와 '민주시민교육 수행'을 위해 1967년 출범하였으며, 전 세계 약 50개국에서 학술·교류 사업을 시행 중이다. 한국사무소는 1987년 개소하여 DMZ 중심 지속가능 사업, 북한 현지 무역·유기농·환경 분야 역량강화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.

- 글랭크 소장은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 재외동포재단*과 협력하여 전 세계 독일계 동포들의 모국과의 연계 유지 및 거주국과 독일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, 재외동포청과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.

* 독일 재외동포재단은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익 재단으로, 전 세계 독일계 소수민족 동포들의 정체성 유지와 영향력 제고 목적으로 활동

- 또한, 글랭크 소장은 양국 재외동포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의 참여와 협력을 제안했다.

- 김 청장은 “이주민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 간 ‘재외동포’를 매개로 한 새로운 협력 기반이 구축되고, 교류·협력 관계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첨부 : 면담 사진 2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	책임자	서기관	이명재 (032-585-3158)
		담당자	사무관	성진주 (032-585-3156)

